

대인간 오해에서 자존감의 수준과 자기평가기준의 효과*

안 미 영

부산대학교

대인간에 일어나는 오해에서 자존감의 개인차 변인과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자존감과 친애욕구의 두 개인차 변인의 역할을 조사하였는데 저자존의 사람이 고자존의 사람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자존친애(저 배척민감)인 사람은 다른 조건들보다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가장 적게 하였다. 그런데 친애욕구의 총점수보다는 그 하위구성요소인 배척민감성점수가 오해경향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연구 2에서는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연구 1에서 보인 자존감수준에 따른 오해경향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통제조건은 이 두 조건의 중간 값을 보였다. 연구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는 대개는 수월하게 해결되지만 비교적 자주 겪게 되고 겪을 때마다 크진 작진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는 비중이 있는 오해도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심지어 헤어지게 되기도 하며, 자신에 대한 재평가나 상대방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한 오해경험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심리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거절하는 말 한 마디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보다'라고 오해하고 마음 상해하며 심지어는 '나는 별로 매력없는 사람같다'는 자기 비하의 평가를 하기까지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별일이네!" 식의 내뱉는 말로 깔끄럽게 느껴지는 감정을 처리하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란 식으로 자신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

이 두 유형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 중 개인차 변인으로는 친애욕구의 수준이나 자존감의 수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인차 변인들은 필자가 제시한 오해과정에 관한 모형(안미영, 1995, 1996)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사람들은 친애 또는 친밀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가정에 함축되어 있다. 이들 개인차 변인들 중에서 친애욕구 수준의 효과는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친애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친애욕구의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쾌한 행동들을 했을 때, '나를 싫어하나보다'와 같은 자기에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였다(안미영, 1995, 연구 7, 8). 다른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 박사후과정 연수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중에서도 자존감의 수준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자존감 수준의 개인차 변인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정도로서 자신의 가치, 값, 또는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적 평가이다(Blascovich와 Tomaka, 1991). 이것은 보다 넓은 개념인 자기(self)의 표상인 자기개념(self-concept)의 평가적 요소에 해당되며 흔히 자기-가치(self-worth; Pelham과 Swann, 1989), 자기-존중(self-regard 혹은 self-respect; Josephs, Markus 및 Tafarodi, 1992), 자기-애정(self-affect; Baumgardner, 1990; Baumgardner, Kaufman 및 Levy, 1989; Campbell과 Fehr, 1990) 등의 용어들이 자존감의 개념으로 통용된다. 자존감의 심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자존감을 실험적으로 조작해 보려고 시도했다. 자존감은 가짜 성격피드백을 통해서(Baumgardner, 1990, 실험 4; Baumgardner, Kaufman 및 Levy, 실험 3, 1989; Greenberg, Pyszczynski, Rosenblatt, Burling, Lyon, Simon 및 Pinel, 1992), 가짜(bogus) 수행피드백을 통해서(Josephs, Markus 및 Tafarodi, 연구 3, 1992; McFarlin과 Blascovich, 1981; Nisbett과 Gordon, 1967; Stotland와 Zander, 1958), 실험적으로 편향된 사회비교를 하게 해서(Morse와 Gergen, 1970), 역할연기를 통해서(Jones, Rhodewalt, Berglas 및 Skelton, 실험 3, 1981), 또는 특성들을 생각하게(방향적 사고; directed-thinking, McGuire와 McGuire, 1996)¹⁾ 함으로써 조작되었다. 이렇게 조작된 자존감은 기분(mood)의 변화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Heatherton과 Polivy(1991)는 기분척도(mood scale)로 자존감의 변화를 포착할 때 실

험의 변인의 혼입문제를 위시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존감의 조작을 자존감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하려고 한 연구들에서도 조작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자존감은 지능이나 A형 행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요인(person factor)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생애 동안의 자기-평가적인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실험적 방식으로 조작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개는 예언요인(predictor)으로서 또는 개인 내 증개변인으로 사용된다(Blascovich와 Tomaka, 1991). 필자도 이런 맥락에서 자존감의 변인을 실험적으로 조작하기보다는 개인차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자존감의 수준은 오해경향성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 필자(안미영, 1996)는 오해를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부적인 의도나 감정 및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는 것으로서 부정 감정을 동반한 사고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오해자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해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도, 또는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즉 오해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고 보는 민감성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해 정도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나를 싫어하나보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와 같은 자기에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이후로 '자기참조적인 생각'으로 칭한다)을 하는 정도로 간주되었다.

Brockner(1983)는 행동순응성(behavioral plasticity)이란 개념으로 자존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외부영향, 특히 사회적 형태의 영향에 더 민감함을 기술하였다. Campbell(1990)도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높은 자존감의 사람보다 자기(self)와 관련된 사회적 단서들의 효과에 일반적으로 더 민감하며, 보다 큰 고양욕구(enhancement need)를 가지므로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는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자존심 수준에 따른 이와 같은 상이한 행동방식은 부정 피드백이 오는 대인관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낮은 자존감의

1) 필자는 방향적 사고(directed-thinking) 방법을 통해 자존감을 조작해 보았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자신에 관한 우호적인(favorable) 특성들(자신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특성들과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을 생각하게 했을 때 비우호적인 특성들(자신이 갖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과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생각하게 했을 때 보다 자존감이 유의하게 더 고양되지 않았다.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갖는 평가나 감정에 더 민감할 것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상황들(안미영, 1996)인 '거리를 두는' 상황이나 '친밀기대 위협'의 상황, 그리고 '자존심을 위협하는' 상황이란 자신과 관련된 부정 피드백이 오는 상황들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에서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높은 자존감의 사람보다 심리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은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기평가의 기준

오해경험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자신(self)에 대한 평가가 상처를 입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생각은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을 위시하여 여러 연구자들(Banaji와 Prentice, 1994; Raynor과 McFarlin, 1986; Suls와 Miller, 1977; Trope, 1986; Wood, 1989)이 공감하는 가정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게 하는 경험들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어난다. 그 과정은 자신이 스스로 비교를 추구하는 자발적인 것이기도 하며 또는 사회환경 자체가 개인이 선택했던 안했던 간에 상관없이 비교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Wood(1989)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사회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규정하며 자신에 대한 감정도 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어떤 사상의 만족도가 그 절대가(absolute value)에 의해서가 아니라 맥락이 되는 다른 사상들과 관련해서 결정된다는 이와같은 상대론적인 이론들은 매우 보편적이다(Helson, 1947, 1964; Parducci, 1965, 1968; Smith, Diener 및 Wedell, 1989).

비록 사회비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나 사회비교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하는 심리적 및 사회적 대가도 있다. Brickman과 Bulman(1977)은 사람들이 사회비교를 추구하는 동기

와 아울러 그것을 회피하려는 동기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비교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사회비교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경험적인 증거들로 뒷받침하고 있다.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가치평가는 그것을 통해 자기향상(self-improvement; Banaji와 Prentice, 1994; Taylor와 Lobel, 1989; Wood, 1989)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비교적 행태가 대인관계에서의 사려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한은 자연스러운 행동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심리적인 안녕감(well-being)이 손상되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거나 자기교만에 빠지거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강박적인 행동에 빠지게도 만든다. 실제로 사회비교를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들도 있다. Purkey(1970)는 학령기 동안 아이들의 사회비교의 세계가 점차 넓어지고 확장됨에 따라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동등한 능력의 학생들 중에서 소규모이며 명성이 덜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규모가 크며 명성이 높은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좋게 생각하고 전문연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결과(Davis, 1966)도 있다. Brickman과 Campbell(1971)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고정관념적인 생각과는 달리 다른 집단들보다 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결과들(Cameron, 1972; Cameron, Titus, Kostin 및 Kostin, 1973)은 그들이 자신을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는 정도를 제한하거나 판단기준의 눈금을 재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요약컨대, 사람들의 자기평가가 주로 사회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대적인 평가이지만 그런 상대적 평가가 갖는 부정적인 대가로 인하여 그런 평가가 회피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평가를 회피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 양식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절대적인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자기평가의 경향성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게 만들며 따라서 오해경향성도 높아지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자기평가를 해 나간다면 이런 오해경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자기 평가기준이나 절대적인 자기 평가

기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사전에 활성화(activation) 시킴으로써 오해 경향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역할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활성화될 때 상대적인 평가기준이 활성화될 때보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오해할 경향성, 즉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하는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활성화될 때가 상대적인 평가기준이 활성화될 때보다 고자존의 사람과 저자존의 사람들이 보이는 오해경향성에서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1. 자존감과 친애욕구의 개인차 변인들과 오해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과 친애욕구 수준의 두 가지 개인차 변인이 오해경향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친애욕구 수준의 역할은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 고친애인 사람이 저친애인 사람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미영 1995, 연구 7, 8). 자존감의 수준에서는 저자존인 사람이 고자존인 사람보다 오해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친애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오해가 일어날 것이며 높은 자존감과 낮은 친애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 가장 작은 오해가 일어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수준이나 친애욕구의 수준에 따라 상대방의 오해유발행동에 대한 특정한 반응양식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부산대학교 1,2학년 학생들로서 교양심리를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실험참가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참가한 학생은 모두 157명으로서 남학생 77명과 여학생 80명이었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였으며 조사는 8명 내지 12명의 소집단으

로 실시되었다.

독립변인

자존감의 고저 수준. Rosenberg(1965)의 자존감척도(Self-Esteem Scale, 1-6점 척도; 신뢰도 $\alpha = .85$)를 실시하여 얻은 자존감점수의 평균 분포에서 중앙치($mdn=4.30$)를 기준으로 하여 피험자들을 고 자존감과 저 자존감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친애욕구의 고저 수준. 차재호(1983)의 친애욕구 척도(1-6점 척도; 남자의 경우 신뢰도 $\alpha = .69$, 여자의 경우 신뢰도 $\alpha = .79$)를 실시하여 얻은 친애욕구점수의 평균 분포에서 중앙치($mdn=4.08$)를 기준으로 하여 피험자들을 저친애와 고친애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오해유발 상황들. 친애욕구를 손상시키는 두 상황과 자존감을 위협하는 두 상황을 설정하였다. 상황들은 안미영(1995)의 연구를 참조하여, 친애욕구와 관련된 상황으로는 '내게 무관심하고 날 배려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와 '내게 연락을 안해 한참동안 못만나고 있다'의 두 상황이 제시되었으며 자존감과 관련된 상황으로는 '내게 잔소리를 한다(참견한다)'와 '내 결점을 지적하거나 날 비난한다'의 두 상황이 제시되었다.

자기참조적 생각의 범주들. 각 오해유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기 참조적인 생각의 정도를 6점 척도(0: 전혀 안듣다, 1: 아주 조금 듣다, 5: 아주 많이 듣다)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자기 참조적 생각들은 '나를 싫어한다', '내게 관심이 없다', '격의없는 친한 사 이로 생각지 않는다', '내게 대한 마음이 변했다', '나를 무시한다' 및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다'의 6가지 범주들이었다. 앞의 네 범주의 생각들은 친애

2) 차재호와 정지원(1990)에서는 친애욕구척도의 신뢰도가 $\alpha = .81$ 로 꽤 높게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만큼 높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피험자 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욕구와 관련된 생각들이며 뒤의 두 범주의 생각들은 자존감과 관련된 생각들이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남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

네가지의 오해유발 상황에서 6가지의 자기참조적 생각들이 든 정도의 평균치, 친구가 각 상황에서 기술한 행동을 보였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의 범주를 우선 골라 그 정도를 0-6점 상에서 평정하고 나서 나머지 5개 범주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각 생각이 드는 정도를 평정하게 한 후, 그 생각들의 정도를 평균하여 자기 참조적 생각의 평균치로 삼았다.

각 오해유발 상황에서의 행동적 반응. 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았다. 6가지의 선지를 주고 각 상황에서 자신이 보일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지들은 앞선 경험적 연구(안미영, 1995, 연구 2)에서 오해의 결과로서 조사된 행동들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만나기를 피할 것이다’,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상태 등을 물어보아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려 할 것이다’, ‘말을 걸어보거나 친절히 대해 보는 등, 다른 상황을 꾸며보아 그 친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할 것이다’, ‘왜 그러냐고 직접 물을 것이다’, ‘그 친구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할 것이다’, ‘아무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그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였다. 이외에 기타의 난을 따로 설정하여 적게 하였다.

의존도와 친밀도. 의존도는 ‘그 친구가 당신에게 보이는 행동에 따라 당신의 기분이나 행복이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영향받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1점(아주 조금 영향받는다)-7점(아주 많이 영향받는다)의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친밀도는 ‘당신이 지적한 그 친구와는 얼마나 친합니까?’란 질문에 대해 마찬가지로 1점(아주 조금 친하다)-7점(아주 많이 친

하다)의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친애욕구 척도와 자존감의 척도. 친애욕구 척도(차재호, 1983)의 문항들은 다른 사람에게의 접근 경향을 나타내는 친애경향성(affiliative tendency)과 회피경향을 나타내는 배척민감성(sensitivity to rejection)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Mehrabian, 1970). 별도의 남녀용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남녀용 검사는 친애경향성을 재는 17개 문항과 배척민감성을 재는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9개 문항이 있었으며, 여자용 검사는 친애경향성을 재는 21개 문항과 배척민감성을 재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4개 문항이 있었다. 자존감의 척도(Rosenberg, 1965)는 모두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반에게는 친애욕구 척도에 이어 자존감의 척도가 제시되도록, 나머지 반에게는 그 반대의 순서로 제시되도록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두 척도의 조사는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다른 실험자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관한 전반적인 기초 자료들을 얻는 일의 일부로서 조사하는 것으로 지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찬성(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의 정도를 1점(아주 반대)-6점(아주 찬성/동의)의 척도를 사용하여 답하게 하였다.

본 조사의 질문지.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모두 7매였다. 조사의 목적은 ‘당신이 알고 지내는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또는 실제로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지를 또는 들었는지를 조사해 보려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먼저 조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동성친구들(같은 또래의 동성친구나 동성 선후배) 중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친구를 한 사람 생각하여 그 친구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응답을 하기 전에 먼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불쾌한 행동을 했을 때 떠오른다고 보고한 생각들을 정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과에는 대표적인 6가지 생각들의 범주와 각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생각들

결 과

이 제시되었다. 이 자료는 선행연구(안미영, 1995, 연구 6)의 조사 결과로서 대부분이 자기 참조적인 생각들이다.

그 다음 장부터는 특정 친구가 보이는 4가지의 오해 유발 행동들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류의 자기 참조적 생각이 드는지를 앞에서 제시한 6가지 대표적인 생각의 범주들만을 제시하여 그 정도를 '전혀 안듣다'(0점)에서 '아주 많이 듣다'(5점)까지의 정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오해 유발행동들은 그 제시 순서를 우선화시킨 4가지 양식의 질문지를 통해 제시되었다. 자기 참조적 생각의 정도를 평정한 다음에는 각 오해 유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적인 반응을 보일지를 제시된 6가지 선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 대한 의존도와 친밀도를 재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표 1. 자존감 수준과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남녀 응답자의 분포

	저 친애		고 친애	
	저자존	고자존	저자존	고자존
남 자	17	20	26	14
여 자	19	22	16	23

두 개인차 변인 상에서의 남녀간 차이. Rosenberg (1965)의 자존감의 척도(1-6점)와 차재호(1983)의 친애욕구 척도(1-6점)를 실시하여 각각의 총 평균점수의 분포에서 중앙치(자존감: 4.30, 친애욕구: 4.08)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자를 자존감 고저, 친애욕구 고저의 두 수준으로 각각 양분하였다. 각 집단에 속한 남녀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저친애집단에서는 자존감 고저 수준에 따른 남녀의 분포가 비슷하였으나 고친애 집단에서는 남자는 저자존의 사람이 더 많았고 여자는 고자존의 사람이 더 많음($\chi^2=4.56$, $df=1$, $p<.05$)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양분된 집단들의 자존감의 평균치와 친애욕구의 평균치에서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다.

자존감 수준과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각 상황에서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 조사대상자를 자존감 고저 집단과 친애욕구 고저 집단으로 양분하여 각 집단에서의 자기참조적 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친애욕구의 수준과 자존감의 수준 및 성별을 피험자 간

표 2. 친애욕구 수준, 자존감 수준 및 성별에 따른 각 오해유발 상황에서의 자기 참조적 생각의 평균

상황		저 친 애		고 친 애		
		저자존	고자존	저자존	고자존	
무 관 심 /배려없음	친애관련생각	1.93 (1.16)*	1.08 (.82)	2.30 (1.01)	2.05 (.86)	
	자존관련생각	1.03 (.99)	.33 (.61)	1.23 (1.19)	.75 (.89)	
남	연락없음	친애관련생각	1.77 (1.32)	1.04 (.86)	1.59 (.95)	1.43 (.97)
	자존관련생각	.59 (.91)	.10 (.31)	.40 (.83)	.11 (.29)	
자	잔소리함	친애관련생각	.43 (.56)	.24 (.37)	.58 (.54)	.48 (.65)
	자존관련생각	2.50 (1.47)	1.25 (1.24)	2.15 (1.16)	1.50 (1.30)	
결점지적	친애관련생각	.81 (.97)	.36 (.36)	.92 (.93)	.95 (.87)	
	자존관련생각	2.12 (1.51)	1.28 (1.46)	2.15 (1.29)	1.93 (1.45)	
무 관 심 /배려없음	친애관련생각	2.34 (1.13)	1.63 (.92)	2.42 (1.02)	2.29 (.96)	
	자존관련생각	1.03 (1.31)	.61 (.83)	.78 (.86)	.76 (.77)	
여	연락없음	친애관련생각	1.87 (1.23)	1.66 (1.35)	1.95 (1.30)	1.73 (1.15)
	자존관련생각	.47 (.59)	.34 (.45)	.13 (.29)	.24 (.64)	
자	잔소리함	친애관련생각	.50 (.58)	.33 (.38)	.61 (.68)	.38 (.49)
	자존관련생각	2.21 (1.78)	1.61 (1.49)	2.13 (1.51)	2.09 (1.39)	
결점지적	친애관련생각	1.15 (1.11)	.66 (.63)	1.45 (1.09)	.87 (.71)	
	자존관련생각	2.32 (1.52)	1.68 (1.48)	2.03 (1.58)	2.35 (1.46)	

*: 표준편차임.

변인으로, 네가지 오해 유발상황과 두 종류의 자기참조적 생각(친애육구와 관련된 생각/자존감과 관련된 생각)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다. 각 집단에서의 자기참조적 생각의 평균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분석의 결과, 자존감 수준의 주효과가 있었다. 예언한 대로 저자존의 응답자들은 고자존의 응답자들보다 자기 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2 대 1.07, $F=10.77$, $df=1$, 149, $p<.01$). 그러나 친애육구 수준의 주효과는 고친애의 응답자와 저친애의 응답자 간의 자기 참조적 생각들의 차이(1.36 대 1.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재확인되지 않았다.

자존감의 수준으로 볼 때 저자존의 사람이 고자존의 사람보다 자기참조적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친애육구의 수준으로 볼 때는 고친애의 사람이 저친애의 사람보다 자기참조적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란 가설에서부터 두 개인차 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저자존-고친애의 사람이 자기참조적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이며 고자존-저친애의 사람이 가장 적게 할 것으로 예견했다. 이 두 개인차 변인으로 본 자기참조적 생각의 평균은 표 3과 같다.

저자존-고친애의 사람이 보인 자기참조적인 생각의 수치가 가장 크며(1.43) 고자존-저친애의 사람이 보인 자기참조적 생각의 수치가 가장 작음(.89)을 알 수 있다. 이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있었다($t=4.20$, $df=82$, $p<.001$). 네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05의 의의도 수준에서 Student-Newman-Keuls의 사후비

표 3. 자존감수준과 친애육구수준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평균

	저 자존	고 자존
고 친애	1.43 ^b (.57)* (n=42)	1.27 ^b (.63) (n=37)
저 친애	1.41 ^b (.86) (n=36)	.89 ^a (.61) (n=42)

*: 표준편차임.

a.b: Student-Newman-Keuls의 사후비교결과.

다른 문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교 검사를 한 결과, 고자존-저친애의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과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예언과 일치하게 고자존-저친애의 집단에서 자기 참조적 생각을 가장 적게 하여 오해를 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자존-고친애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이란 예언은 지지되지 않았다.

배척민감성 대 친애경향성 친애육구의 척도가 배척민감성(sensitivity to rejection)을 재는 문항들과 친애경향성(affiliative tendency)을 재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하위요소가 자기 참조적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이 두 요소에서의 점수와 총친애육구점수, 자존감의 점수, 의존도 및 친밀도, 그리고 성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 참조적 생각의 총평균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4). 단계적회귀분석의 결과, 배척민감성과 자존감의 두 변인만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기참조적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친애육구의 요소는 친애경향성이라기 보다는 배척민감성이며 총친애육구 점수보다는 그 하위요소인 배척민감성을 지표로 삼는 것이 오해 경향성을 알아보는 데는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척민감성점수의 분포에서 그 중앙치($mdn=3.96$, $sd=.51$)를 기준으로 하여 피험자를 배척민감성 고저로 구분하였을 때 총친애육구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을 때와는 달리 분명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7.41$, $df=1$, 149, $p<.001$) 고자존-저 배척민감성의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적게 하는 정도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5). 배척민감성

표 4.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의 결과

	B	β	t	p
배척민감성	.42	.31	4.03	<.001
자존감	-.20	-.21	-2.77	<.01
	R=.42	R ² =.17	F=16.02	p<.001

이 높은 응답자는 배척민감성이 낮은 응답자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하였다(1.51 대 .98). 또한 고자존-저배척민감성의 집단은 사후비교에서 나머지 세 집단 각기와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자기참조적 생각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효과들. 예언에 따른 결과들 외에 친애욕구의 수준과 상황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F=3.58, df=3, 447, p<.05$). 친애욕구의 고저 집단 간에 보이는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 차이는 무관심/배려없음의 행동을 상대방이 보일 때 가장 컸으며(.43) 그 다음이 상대방이 자신의 결점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29)였다. 연락이 없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

표 5. 배척민감성의 수준과 자존감수준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

	저 자존	고 자존
고 배척민감	1.53 ^b (.66)* (n=48)	1.48 ^b (.53) (n=32)
저 배척민감	1.26 ^b (.78) (n=30)	.79 ^a (.56) (n=47)

*: 표준편차임.

a,b: Student-Newman-Keuls의 사후비교결과.
다른 문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표 6. 친애욕구 수준과 오해유발상황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평균

상황	저친애 (n=78)	고친애 (n=79)	t
무관심/배려없음	1.39 (.92) ^a	1.82 (.83)	-3.09*
연락없음	1.17 (.94)	1.20 (.81)	-.20
잔소리함	.87 (.72)	1.01 (.65)	-1.32
결점지적	1.10 (.90)	1.39 (.80)	-2.18*

a: 표준편차임. *: 양방검정으로 $p<.05$ 에서 유의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각각에서의 차이가 .03, .14; 표 6 참조).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차이는 무관심/배려없음의 오해 상황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이 상황은 안미영(1995, 연구 8-1)에서도 유의하게 차이가 난 상황이었다.

오해유발 상황의 주 효과는 상당히 커서($F=25.29, df=3, 447, p<.001$), 무관심/배려없음의 상황에서 자기참조적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으며($m=1.61$) 그 다음이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할 때($m=1.25$), 연락이 없을 때($m=1.19$)의 순이었고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할 때는 자기참조적인 생각이 가장 적게 일어났다($m=.94$). 이 상황의 효과는 자기참조적인 생각이 친애욕구와 관련된 생각인지 또는 자존감과 관련된 생각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서 친애욕구를 손상시키는 상황에서는 친애욕구와 관련된 자기참조적 생각을 자존감과 관련된 생각보다 더 많이 하며 자존감의 위협상황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생각을 친애욕구와 관련된 생각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황과 생각 간의 상호작용효과: $F=214.75, df=3, 447, p<.001$, 표 7). 안미영(1995)의 오해과정에 관한 모형에서 가정했던 대로 친애욕구를 손상시키는 오해 상황에서는 '나를 싫어한다', '내게 관심이 없다', '격의없는 친한 사이로 생각지 않는다', '내게 대한 마음이 변했다'와 같은 친애욕구와 관련된 자기참조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나며, 자존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나를 무시한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다'는 자존감과 관련된 자기참조적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결과는 안미영(1995, 연구 6)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표 7. 각 오해상황에서 두 유형의 자기참조적 생각이 든 정도의 평균(n=157)

	친애욕구 관련생각	자존감 관련생각	t
무관심/배려없음	2.00(1.06) ^a	.83(.98)	13.63*
연락없음	1.62(1.15)	.31(.61)	15.74*
잔소리함	.44(.53)	1.94(1.44)	-13.90*
결점지적	.88(.88)	1.99(1.47)	-9.32*

a: 표준편차임. *: 양방검정으로 $p<.001$ 에서 유의함.

표 8. 성별 및 자존감 수준에 따라 두 유형의 자기참조적 생각이 든 정도의 평균

생각의 유형	남 자		여 자	
	저자존 (n=43)	고자존 (n=34)	저자존 (n=35)	고자존 (n=45)
친애욕구관련	1.30 (.69)*	.90 (.60)	1.53 (.77)	1.20 (.67)
자존감 관련	1.51 (.83)	.88 (.77)	1.40 (.94)	1.21 (.80)

*: 표준편차임.

변량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기타 유의있는 결과는 성별과 자존감의 수준과 자기참조적 생각의 유형간의 삼원상호작용이었다($F=4.62$, $df=1$, 149 , $p<.05$). 성별과 자존감 수준에 따라 두 유형의 자기참조적 생각이 든 정도는 표 8과 같다.

대체적으로 저자존의 사람이 고자존의 사람보다 어떤 유형의 자기 참조적 생각이든지에 상관없이 자기참조적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자존감수준에 따른 차이가 여자응답자에서는 남자응답자보다 작으며, 특히 자존감과 관련된 생각일 때 이 차이가 남자응답자에서보다 크게 작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쾌한 상황들에서 친애욕구와 관련된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하는 정도는 남녀 공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며 그 정도의 차이가 비슷한 반면에, 자존감과 관련된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하는 정도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정도의 차이가 남자의 경우에 큰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작았다.

오해상황에 대한 행동적 반응. 응답자들에게 각 오해 상황들에서 자신이 보일 반응과 가장 가까운 것을 6가지 선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지들은 '만남을 피한다', '제 3자에게 이유를 물어본다', '상황을 꾸며 진심을 알아본다', '직접 물어본다', '상대가 한 그대로 해 준다', '내색없고 기다린다'였다.

네가지 오해 유발 상황에 걸쳐서 반응들을 종합해

표 9. 무관심/배려없음의 오해유발 상황에서의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반응유형의 분포

	피함	3자에게 물음	상황 꾸밈	직접 물음	보복	기다림
고친애	6	8	19	10	16	18
저친애	4	7	4	20	14	25

보았을 때, 가장 빈번하게 선택된 반응은 '직접 물어본다'로 전체 응답의 30.7%를 차지했으며, 24.4%의 응답이 '내색 없고 그냥 기다린다'였다. 그 다음으로 '상황을 꾸며 진심을 알아본다'(12.7%), '제 3자에게 이유를 물어본다'(10.5%), '상대가 한 그대로 해준다'(8.4%), '만남을 피한다'(4.6%)의 순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몇 가지 오해유발 상황에 대한 반응 유형은 친애욕구수준이나 성별에 따라 그 분포가 달라졌다. 먼저, 무관심/배려없음의 오해유발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이 취하는 반응은 친애욕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14.80$, $df=5$, $p=.01$; 표 9).

두드러진 것은 고친애의 응답자는 저친애의 응답자보다 무관심/배려없는 행동을 친구가 할 때, '말을 걸어보거나 친절히 대해 보는 등, 다른 상황을 꾸며보아 그 친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반응'을 유독 많이 하며 반면에 저친애의 응답자는 고친애의 응답자보다 친구의 이런 오해유발 행동에 대해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거나', '내색없고 그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반응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편, '친구가 연락을 안해 한참 동안 못 만나고 있는' 오해상황에 대한 반응에서는 남녀 간에 그 반응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chi^2=12.65$, $df=5$, $p<.05$; 표 10). 남자는 여자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상태를 물음으로써 넌즈시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이 상황에서 '말을 걸어보거나 친절히 대해 보는 등, 다른 상황을 꾸며보아 그 친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반응' 과 '내색없고 그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반응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10. 연락없음의 오해유발 상황에서의 성별에 따른 반응유형의 분포

	피함	3자에게 물음	상황 꾸밈	직접 물음	보복	기다림
남 자	0	17	7	26	2	14
여 자	1	7	17	22	6	21

의존도 및 친밀도와 자기참조적 생각. 각 오해유발 상황에서 일어난 생각들의 정도와 행동적 반응을 답한 후에 응답자들에게 상대방의 행동여하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의 정도와 상대방과 얼마나 친한지를 1점(아주 조금 영향받는다/아주 조금 친하다)-7점(아주 많이 영향받는다/아주 많이 친하다)의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보인 의존도의 평균은 4.40으로서 척도의 평균점 근처였으며 친밀도의 평균은 5.75로서 척도의 평균점보다 높았다.

자기참조적 생각과 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의존도변인은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와 유의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r=.06$) 친밀도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18, p<.05$, 양방검증). 다시 말해 자기참조적 생각을 적게 할수록 그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대방이 친한 사람일수록 비록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하더라도 오해로 이끄는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적게 함을 시사해 준다.

논 의

연구 1에서 제기한 예언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예언대로 저자존감의 응답자들은 고자존감의 응답자들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애욕구수준의 효과는 총친애욕구점수를 지표로 삼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친애욕구척도의 전체 문항의 응답을 평균한 총친애욕구 점수보다는 친애욕구척도의 하위요소인 배척민감성을 재는 문항들에서의 응답만을 고려한 배척민감성 점수가 자기참조적인 생각과 더 크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배척민감성수준을 지표로 삼았을 때, 배척민감성이 높은 응답자가 배척민감성이 낮은 응답자보다 오해상황들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뚜렷하게 더 많이 하였다. 배척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의 배척하는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적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의해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즉, 상대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거부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다. 자존감의 수준과 친애욕구(또는 배척민감성) 수준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고자존치며 친애욕구(또는 배척민감성)가 낮은 응답자가 두 개인차 변인을 조합한 나머지 세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오해상황들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유의하게 더 적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가장 쉬운 상황은 '무관심하거나 배려해 주지 않는' 상황이며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상황도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연락을 안한다'거나 '잔소리하는' 행동은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크게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참조적인 생각의 종류는 상황이 친애적인 상황일 때는 친애욕구와 관련된 생각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며 상황이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었을 때는 자존감과 관련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경향이 응답자의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또는 친애욕구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자존감과 관련된 오해 상황에서 또는 모든 오해상황들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자존감과 관련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이라고 친애욕구와 관련된 오해상황에서 또는 모든 오해상황들에서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보다 친애욕구와 관련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자기참조적인 생각이 일어나는가는 상황에 따라 각 상황과 관련된 욕구에 해당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개인차변인에 의해 특정유형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해 상황들에 대한 행동적인 반응에서는 친애욕구수준이나 자존감 수준에 따른 일관된 행동반응패턴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오해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상황인 '무관심하거나 배려없는' 행동에서 친애욕구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친애욕구수준이 낮은 응답자보다 '상황을 꾸며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간접적인 행동방식을 더 많이 취하는 반면에, 친애욕구 수준이 낮은 응답자는 높은 응답자보다 '직접 물어보는' 직접적인 방식이나 '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지 기다리는' 반응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연구 1을 통해 저자존의 사람이 고자존의 사람보다 오해경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오해경향성은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민감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존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더 민감하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평가도 더 쉽게 영향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저자존의 사람은 자기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반영시키는 상대적인 평가를 더 하기 쉽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 자기평가가 일어나도록 해 준다면 오해경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해 자체가 상대적인 자기평가가 일어나는 경험이므로 상대적인 또는 절대적인 자기평가의 기준을 활성화시키는 조작은 오해경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 2는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자기평가 기준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2. 자존감의 효과를 조절하는 자기평가기준

연구 2에서는 자기평가 기준의 유형이 오해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자기 평가 방식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교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비교를 회피하려는 동기 하에서 자기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상대적인 평가방식은 다른 사람의 수준이나 반응에 민감하게 하며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오해할 경향성을 높일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수준이나 반

응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기 평가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오해 경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각 기준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활성화는 점화(priming) 절차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점화절차는 태도연구에서 피험자가 가진 기존의 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으로 사용된 바 있다(구정숙, 1994; Fazio, Sanbonmatsu, Powell 및 Kardes, 1986; Young, Thompson, Borgida, Sullivan 및 Aldrich, 1991). 본 연구에서는 오해경향성을 측정하기 전에 실험과 무관한 기억검사로 위장하여 상대적인 또는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옹호하는 글을 읽게 하였다.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킬 때가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킬 때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덜 할 것이며 자존감 수준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의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피험자

부산대학교 1, 2학년 학생들로서 교양심리를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남학생 68명, 여학생 61명으로 총 129명이 참가하였다. 성별 변인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존감 수준을 고저로 양분할 때 40%-60%에 속하는 중간범위의 피험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결과의 분석에 사용된 피험자 수는 모두 106명이었다. 각 피험자는 자기평가 기준의 조건들에 무선배정되었다. 실험은 10명-20명의 소집단으로 실시되었으며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독립변인

자존감의 수준. Rosenberg(1965)의 자존감척도(0-10점의 11점 척도; 신뢰도 $\alpha = .81$)를 실시하여 상위 40%(6.3)와 60%(7.1)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존감 고저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기 평가기준. 절대적인 자기 평가기준과 상대적

인 자기 평가기준을 옹호하는 글을 읽게 한 두 실험 조건과 사형제도의 폐해에 관한 글을 읽게 한 통제조건이 설정되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 연구 1에서 제시한 상황들과 동일하였다.

종속변인의 측정

네가지의 오해유발 상황에서 6가지 자기참조적 생각들(연구 1에서와 동일)이 든 정도의 평균치를 구하여 오해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친구가 각 상황에서 기술한 행동을 보였을 때 각 생각이 드는 정도를 0-6 점 상에서 평정하게 한 후 그 생각들의 정도를 평균하여 자기 참조적 생각의 평균치로 삼았다.

절차

위장된 연구각본(cover story).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오면 각자 칸막이가 설치된 개인용 책상에 앉도록 하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심리학과의 성격심리 연구 파트에서 성격을 재는 척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자존감척도를 먼저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장된 연구의 주제를 알려주었다. 연구는 일정한 글에 대한 이해도와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하고 먼저 짤막한 글을 읽고 그 글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오해경향성의 측정은 각 글에 대한 기억을 조사하기 위한 15분의 지연간격 동안에 실시되었다.

절대적 자기평가기준과 상대적 자기평가기준의 활성화. 피험자들에게 무선적으로 절대적인 자기평가를 지지하는 글과 상대적인 자기평가를 지지하는 글, 그리고 통제조건으로서 사형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글을 주었다.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글과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글은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이었다.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지지하는 글에는 “사람은

한 가지 썩의 재능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그 생각이 쉽게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 제시하고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상대적인 자기평가의 단점들을 기술한 후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에 무관하게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행동방식이 더 유익하게 생각됩니다……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하는 등의 반응양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고유한 가치를 지닌 자신으로 귀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었다.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지지하는 글은 “…이런 다양한 측면을 통한 자신의 가치는 대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서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반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게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에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라고 한 후 상대적인 자기평가의 이점들에 대해 기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며, 그것의 영향을 받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개인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정이 오가는 대인관계의 기초에 필수적인 행동양식인 것입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 앞서서 별도로 31명(절대평가기준의 글을 받은 15명, 상대평가기준의 글을 받은 16명)의 1, 2학년 학생들에게 그 주장의 선명도(3.27 대 3.50), 강도(2.93 대 3.56), 설득력 정도(2.73 대 2.69), 및 동의 정도(3.33 대 3.19)등을 1점(아주 약간)-5점(아주 많이)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는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형제도에 관한 글은 구정숙(1994, 연구 4)이 사용한 글로서 본 연구에서는 A4 용지 한 장의 분량으로 줄였다.

피험자들은 자신이 받은 글을 4-5분간 정독하도록 하였고 다음 장에 제시된 질문들에 답하게 하여 글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였다. 질문지에는 각 글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아주 약간- 5점: 아주 많이 동의한다)상에 표시하게 하였고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이나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여러 행동양식들을 주어서 자신이 받은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얼마나 일치되는지의 정도를 -4점(매우 불일치한다)에서 +4점(매우 일치한다)의 9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통제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제도의 찬반에 해당되는 행동양식들을 주어 판단하게 하였다. 글의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와 여러 행동양식들이 글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했는지의 정도는 종속변인인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와 거의 상관성이 없었다(각각 $r=-.07, .02, n=129$).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 각 자기평가기준에 관한 글을 읽고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15분 후에 자신이 받은 글에 대한 기억을 조사하겠다고 지시하고 자신이 받은 글과 답한 것을 간단히 훑어보게 하였다. 글과 질문지를 회수한 후, 그 동안 대인관계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험자가 설정한 특정 친구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네가지 행동들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이 얼마나 들지를 0점(전혀 안 든다)-5점(아주 많이 든다)의 6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생각의 범주들에 포함된 구체적인 생각들을 정리한 별도의 정보의 제시가 종속변인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따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친밀도나 의존도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 외의 질문지의 구성은 연구 1과 동일하다.

사후설명.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에 관한 질문지를 회수하고 나서 실제로 기억검사는 하지 않으며 실험이 다 끝났음을 알려 주었다. 전체 실험이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물어 보았을 때 기억검사용으로 제시된 글과 대인관계에 관한 조사라고 제시 하였던 오해 상황에서의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에 관한 질문지 간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피험자가 한 명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머지 모든 피험자들은 그 둘 간의 관련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연구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기억검사가 실제로 있지 않음을 얘기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실험을 끝냈다.

결과 및 논의

피험자의 구분, 피험자들을 자존감 점수의 전체 분포에서 40%($m=6.30$)와 60%($m=7.10$)를 기준으로 하여 자존감 고저의 양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저자존 집단의 자존감 점수의 평균은 5.40이며 고자존 집단의 평균은 7.72였으며 평가기준 조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자존감의 수준과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 자존감 고저 수준과 평가기준(통제조건을 제외)에 따라 자기참조적 생각이 드는 정도를 각 오해 상황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의 평균이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자존감의 수준, 평가기준, 및 오해 상황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의 평균

상황	평가기준	저자존	고자존	
무관심/ 배려없음	절대	1.73(.63)*	1.93(1.15)	
	상대	1.94(.94)	1.31(1.10)	
	통제	1.78(.92)	1.66(.96)	
		1.81(.83)	1.60(1.08)	n.s.
연락없음	절대	1.45(.93)	1.14(1.03)	
	상대	1.58(1.07)	.69(.58)	
	통제	1.26(1.20)	.97(.41)	
		1.42(1.06)	.91(.70)	p<.01
잔소리/ 참견함	절대	.93(.50)	.74(.49)	
	상대	1.37(.82)	.66(.56)	.93(.70)
	통제	1.08(.92)	.87(.64)	
		1.10(.76)	.75(.57)	p<.01
결점지적 /비난	절대	1.24(.93)	1.42(1.04)	
	상대	1.68(1.05)	.98(.86)	1.24(.95)
	통제	1.39(.85)	.85(.91)	
		1.41(.94)	1.05(.94)	p<.05

*: 표준편차임.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자준의 피험자들이 고자준의 피험자들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였다(1.47 대 1.07; $F=5.15$, $df=1$, 65, $p<.05$). 그러나 자기평가기준의 주효과는 예언과는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오해 상황과는 단절된 기억검사의 맥락에서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으로는 오해 상황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덜하도록 또는 더하도록 만들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평가기준의 활성화작용은 개인차변인인 자존감의 수준과 상호작용을 보였다($F=4.30$, $df=1$, 65, $p<.05$).

예언과 일치되게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하는 정도가 저자준 피험자와 고자준 피험자 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났지만(1.64 대 .91; $t=3.10$, $df=33$, $p<.01$),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이런 차이가 사라졌다(1.34 대 1.31; 그림 1). 오해상황과는 무관한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시킨 통제조건은 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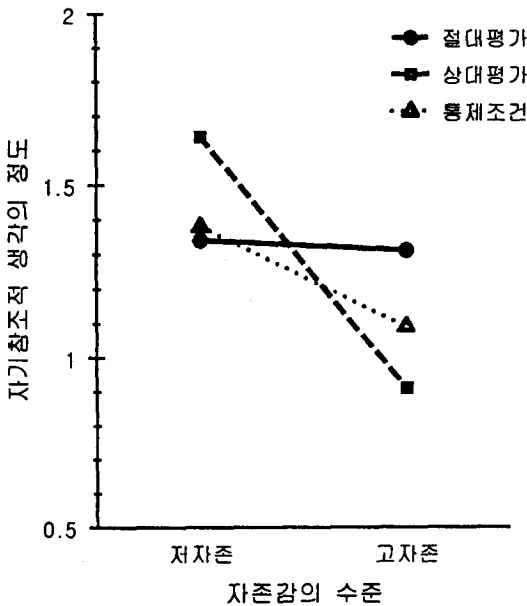


그림 1. 자존감의 수준과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 정도의 평균

기준 조건의 사이 값을 보였으며 저자준의 피험자가 고자준의 피험자보다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조건들에서의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를 사후비교(Student-Newman-Keuls test, $p<.05$)해 보니,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 자존감수준에 따른 오해경향성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서 저자준의 피험자들은 모든 조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이 든다고 응답하였고 고자준의 피험자들은 모든 조건들 중에서 가장 적게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건에서 고자준인 사람들의 오해경향성은 매우 낮아서 통제조건의 저자준인 사람과도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또 이 조건에서 저자준인 사람들의 오해경향성은 매우 높아서 통제조건의 고자준인 사람과도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표 12). 따라서,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저 자존감의 사람들 간의 오해경향성에서의 차이가 더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해 상황의 주효과는 매우 큰데($F=20.36$, $df=3$, 195, $p<.001$) 이것은 연구 1에서도 확인된 결과이다. 제시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상황은 무관심/배려없음($m=1.70$)의 상황이었으며 그 다음이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상황($m=1.24$), 연락없음($m=1.17$)의 상황, 잔소리를 한다($m=.93$)는 상황의 순이었다. 각 상황마다 자존감 수준에 따른 단순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12 참고), 무관심/배려없음의 오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들에서 저자준의 피험자가 고자준의 피험자보다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자존

표 12. 자존감의 수준과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 정도의 평균

	저자준	고자준
절대평가	1.34bcd (.58)*	1.31ab (.83)
상대평가	1.64b (.79)	.91ad (.61)
통제조건	1.38bc (.81)	1.09ac (.57)

*: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a,b,c,d: 다른 문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 (Student-Newman-Keuls test, $p<.05$).

심 수준의 단순효과가 보였다. 무관심/배려없음의 상황은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자체의 효과가 커서 자존감의 개인차변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논의

연구 1을 통해 오해상황에서 자기참조적 생각이 드는 정도에 자존감의 수준이란 개인차변인이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저자존의 사람은 고자존의 사람보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으며 친애욕구, 또는 배척민감성이 낮은 사람이 오해할 가능성이 가장 적음을 보여주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친애욕구 변인에서 전반적인 친애욕구의 정도나 그 하위 구성요소의 하나인 친애경향성보다도 배척민감성이란 하위 구성요소가 자기참조적인 생각의 정도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해경향성을 알아보는 데는 총친애욕구 점수보다는 배척민감성을 지표로 삼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 시사된다.

오해 상황의 효과는 연구 1과 2에서 공통되게 나타났다. 가장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황은 무관심 또는 배려없는 행동을 보일 때이며 그 다음이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할 때, 연락이 없을 때, 잔소리를 할 때의 순이었다.

자기평가기준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 2에서는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수준의 주효과가 다시 재확인되었다. 저자존의 사람은 고자존의 사람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였다. 자기평가기준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서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가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켰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자기참조적인 생각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활성화된 자기평가기준은 자존감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평가기준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저자존의 사람과 고자존의 사람이 보이는 오해경향성의 차이가 매우 컸으나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이런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자기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활성화시킨 통제조건에서는 연구 1의 결과와 일치되게, 저자존의 사람이 고자존의 사람보다 자기참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2에서 자기평가기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가지는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과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내용이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주로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단점들을 상기시키면서 절대적인 자기평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데 그쳤고 후자는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이점들을 강조하는 글이었다. 두 조건 모두 다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내용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활성화가 미흡하였을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한 다른 관점은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이 활성화되었어도 워낙 사람들이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을 활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Klein(1997)은 진단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사회비교적인 정보에 더 주목하는데, 심지어 그 정보가 비진단적일지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이 활성화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자존감의 수준에 따른 오해경향성에서의 차이(통제조건)가 더 증폭되며 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 차이가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상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받는다. Wood(1989)의 지적처럼 사람들은 매우 빈번하게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사회비교적인 평가가 매우 강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만큼에 상응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절대적인 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충분한 효과를 내는 조작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 2의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는 오해경향성을 감소시키는 한 방안으로 자기평가기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유용성을 시사해 준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자기평가 기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자존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의 오해경향성을 떨어뜨리고자 한다면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단점들을 주목하게(절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조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점들을 상기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존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인 자기평가기준의 이점을 주지시키기 보다는 그 해악을 주지하게 하는 것이 오해 경향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비교의 관점을 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간은 다른 맥락이지만 Pelham 과 Swann(1989)은 현저하게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저자존감의 사람에 해당)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의 중요성을 감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생각은 절대적인 자기평가 기준의 글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일치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사회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써 심리적인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Taylor와 Brown, 1988)처럼 자존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활성화시켜 사회비교에서 벗어나게 할 때 적어도 통상적인 오해 수준보다 더 큰 오해를 하게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정숙(1994). 정적 태도와 부정 태도의 독립성과 기능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미영(1995). 대인관계에서의 오해과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미영(1996). 대인관계에서의 오해과정에 관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한국심리학회.

차재호(1983). 동기진단검사. 서울: 전인교육발전연구소.

차재호·정지원(1990).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보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9.

Banaji, M. R., & Prentice, D. A.(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Baumgardner, A. H., Kaufman, C. M., & Levy, P. E. (1989). Regulating affect interpersonally: When low esteem leads to greater 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07-921.

Baumgardner, A. H.(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Blascovich, J., & Tomaka, J.(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115-160). Academic Press.

Brickman, P., & Bulman, R. J.(1977). Pleasure and pain in social comparison. In J. M.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pp.149-186). Washington D. C.: Hemisphere.

Brickman, P., & Campbell, D. T.(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 H. Appley (Ed.), *Adaptation-leve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Brockner, J.(1983). Low self-esteem and behavioral plasticity: Some implications. In L. Wheeler & P. Shaver (Ed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 4 (pp.237-271).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Cameron, P.(1972). Stereotypes about generational fun and happiness. *Gerontologist, Summer, Part 1*, 120-123; 190.

Cameron, P., Titus, D. G., Kostin, J., & Kostin, M. (1973). The life satisfaction of non-normal pers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207-214.

- Campbell, J. D.(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ampbell, J. D., & Fehr, B.(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 Davis, J. A.(1966). The campus as a frog pond: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to career decisions of college 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17-31.
- Festinger, L. A.(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Lyon D., Simon, L., & Pinel, E.(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g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13-922.
- Heatherton, T. F., & Polivy, J.(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95-910.
- Helson, H.(1947). Adaptation-level as frame of reference for prediction of psychological data.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0*, 1-29.
- Helson, H.(1964). *Adaptation-level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Jones, E. E., Rhodewalt, F., Berglas, S., & Skelton, J. A.(1981). Effect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subsequen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07-421.
- Josephs, R. A., Markus, H. R., Tafarodi, R. W.(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Klein, W. M.(1997). Objective standards are not enough: Affective, self-evalua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763-774.
- McFarlin, D. B., & Blascovich, J.(1981). Effects of self-esteem and performance feedback of future affective preferences and cognitive expec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521-531.
- McGuire, W. J., & McGuire, C. V.(1996). Enhancing self-esteem by directed-thinking tasks: Cognitive and affective positivity asymmet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17-1125.
- Mehrabian, A.(197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417-428.
- Morse, S., & Gergen, K. J.(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Nisbett, R., & Gordon, A.(1967). Self-esteem and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268-276.
- Parducci, A.(1965). Category judgment: A range-frequency model. *Psychological Review, 72*, 407-418.
- Parducci, A.(1968). The relativism of absolute judgments. *Scientific American, 219*, 84-90.
- Pelham, B. W., & Swann, W. B. Jr.(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Purkey, W. W.(1970). *Self concept and school achieve-*

- ment. Englewood Cliffs, J. J.: Prentice-Hall.
- Raynor, J. O., & McFarlin, D. B.(1986). Motivation and the self-system.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pp.315-349). New York: Guilford.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R. H., Diener, E., & Wedell, D. H.(1989). Intrapersonal and social comparison determinants of happiness: A range-frequen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17-325.
- Stotland, E., & Zander, A.(1958).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failure on self-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 223-229.
- Suls, J. M., & Miller, R. L.(1977).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e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 C.: Hemisphere.
- Taylor, S. E.,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Lobel, M.(1989). Social comparison activity under threat: Downward evaluation and upward contacts. *Psychological Review*, 96, 569-575.
- Trope, Y.(1986). Self-enhancement and self-assessment in achievement behavior.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350-378). New York: Guilford.
- Wood, J. V.(1989).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social comparisons of personal attribute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31-248.
- Young, J., Thompsen, C. J., Borgida, E., Sullivan, J. L., & Aldlich, J. H.(1991). When self-interest makes a difference: The role of construct accessibility in political reas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71-296.

Effects of the Level of Self-esteem and th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in the Interpersonal Misunderstandings

Mi-Young Ah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s of two variables in the interpersonal misunderstandings were investigated, the level of self-esteem and th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In the Study 1, two personal variables, the levels of self-esteem and the need for affiliation,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with low self-esteem had more self-referent thoughts than the subjects with high self-esteem. Also, the subjects with high self-esteem and low need for affiliation(or low level of sensitivity to rejection) had the least self-referent thoughts. In the Study 2, relative or absolut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was activated in advance of responding to the situations of eliciting interpersonal misunderstandings. The effect of the level of self-esteem found in the Study 1 became more peculiar in the condition when the relativ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was activated, whereas it was not found when the absolut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was activated. In the control condition(irrelevant thoughts were activated), the results was positioned in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Implications were discussed.